굿바이! 네드베트 22일 함부르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년 독일월드컵 본선 E조 체코와 경기에서 승리한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토티(왼쪽)가 체코의 파벨 네드베트 선수를 위로해 주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빛과 그림자

‘죽음의 조’서 살아난 ‘검은별’ 가나 돌풍

우승후보 체코·세르비아등동유럽 몰락

2006 독일월드컵축구 첫 출전국 가운데 ‘아프리카의 검은 별’ 가나가 단연 돋보인다.

가나는 23일(한국시간) E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미국을 2-1로 꺾고 이탈리아에 이어 조2위로 16강에 올랐다.

이번 대회 공식 첫 출전국은 아프리카에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토고, 앙골라의 4개국, 북중미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의 체코,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뒤 처음으로 출전했고,체코는 체코슬로바키아라 국명으로 월드컵에 단골로 나오다 1993년 슬로바키아와 분리된후 독자 출전했다.

또 세르비아-몬테네그로도 유고슬라비아라는 국명으로 7차례나 월드컵에 출전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월드컵 무대가 난생 처음인 국가는 이들 3개국을 제외한 5개국.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제외하면 모두 아프리카대륙에 속해 있다.

가나는 1차전에서 이탈리아에 0-2로 졌지만 2차전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위인 체코를 2-0으로 잡은 뒤 미국마저 제치고 16강에 진출했다.

가나는 2002년 한일월드컵때 본선을 처음 밟아 프랑스를 꺾는 등 8강까지 오른 세네갈의 전례를 이어갈 태세다.

그러나 같은 ‘검은 대륙’ 소속의 나머지 3개국은 재미를 보지 못했다.

앙골라는 1차전에서 포르투갈에 0-1로 아쉽게 패한 뒤 멕시코, 이란과 잇따라 비겨 고배를 마셨고, ‘수당 문제’로 탈이 많았던 토고는 한국과 스위스에 잇따라 패해 탈락이 확정됐다.

또 코트디부아르는 우승 후보국인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를 차례로 만나 기를 펴보지 못하고 3차전에서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꺾어 1승을 올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국명을 바꿔 출전한 3개국 가운데 체코는 ‘아프리카의 복병’ 가나를 만나 1승2패로 16강 탈락의 아픔을 맛봤고, 세르비아-몬테네그로는 3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연방 국명으로 출전한 마지막 대회를 쓸쓸하게 마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히딩크 “또 혼내주마” VS “반드시 설욕을” 아주리 군단

■16강전 관심 끄는 경기

▲호주-이탈리아(27일)

거스 히딩크 감독이 4년만에 이탈리아와 다시 만났다.

달라진 것은 자신이 지휘하던 태극전사가 아니라 ‘사커루’ 호주대표팀이고 공통점은 다시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와 독일월드컵 본선 16강전에서 격돌한다는 것.

정말 희한한 인연이다. 2002년 6월18일 한일월드컵축구 16강전이 열리던 대전월드컵경기장에는 1966년 월드컵때 북한이 이탈리아를 꺾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어게인 1966’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관중석에 내걸렸다.

이 현수막을 본 이탈리아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경기에서도 한국의 심리전에 말려 경기를 망치고 말았다.

당시 한국을 이끌던 히딩크 감독은 선제골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몸싸움을 벌여 다혈질인 이탈리아 선수들을 자극하라고 주문했고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 5명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 작전은 맞아 떨어져 이탈리아 선수들은 줄줄이 옐로카드를 받았고 설기현의 후반 동점골로 연장전에 돌입한 뒤에는 플레이메이커 프란체스코 토티가 시뮬레이션 액션을 하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기까지 했다.

조반니 트라파토니 감독은 본부석으로 달려가 벽을 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연장 후반 12분 안정환의 골든골이 터지면서 117분간의 접전은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객관적인 실력에서는 호화군단 이탈리아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였지만 히딩크의 작전에 이탈리아는 분루를 삼켜야만 했다.

설욕을 다짐하고 있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히딩크 감독이 ‘어게인 2002’라는 마법을 펼칠 수 있을 지 27일 호주-이탈리아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안시현 “이번엔 내차례”

■웨그먼스 1R 7언더 단독선두

美 무대 첫 승 노린다

한국의 안시현이 23일 미국 록커스트힐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웨그먼스LPGA 1라운드 9번홀에서 버디퍼트를 실수하고 아쉬워 하고 있다. 7언더파 65타를 때려 단독 선두에 나섰다. /연합뉴스

올해 7승을 일궈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한국 낭자군 가운데 안시현(22)이 8번째 우승을 향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안시현은 2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록커스트힐골프장(파72·6천221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웨그먼스LPGA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때려 단독 선두에 나섰다.

2003년 CJ나인브릿지클래식 우승으로 벼락 스타로 떠오른 뒤 2004년 신인왕까지 꿰찼던 안시현은 그러나 미국 땅에서는 한번도 우승컵을 안아보지 못해 애를 태웠다.

올해도 메이저대회 2차례 ‘톱10’ 등 그런대로 성적은 냈지만 한국 선수 우승이줄줄이 이어지면서 팬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대회에 앞서 메이저대회인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에서 최종 라운드까지 욱승을 다투다 공동5위를 차지하면서 상승세를 탄 안시현은 이날 보기없이 7개의 버디를 골라내는 깔끔한 플레이가 돋보였다.

브리타니 랭(미국)이 66타를 쳐 안시현에 1타차 2위를 달렸지만 리더보드 상단은 온통 한국 선수 차지였다.

문수영(22)이 5언더파 67타로 2타차 3위에 올랐고 박희정(25·CJ)는 4언더파 68타로 4위에 이름을 올려 1~4위 가운데 3명이 한국 선수였다. 또 장정(26·기업은행)은 3언더파 69타를 때려내 공동5위에 자리를 잡았고 2언더파 70타로 공동10위에 오른 김주미(22·하이트맥주), 이선화(20·CJ), 조령아(22)까지 포함하면 ‘톱10’에 7명이 포진했다.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김미현(29·KTF)과 한희원(28·휠라코리아)은 이븐파 72타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

최경주, 첫날 공동 16위 출발

부즈앨런클래식 1R 3언더파 68타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부즈앨런클래식 첫날을 순조롭게 풀어냈다.

최경주는 23일(한국시간) 메릴랜드주 포토맥의 TPC애브널(파71·7천232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 경기에서 보기는 2개에 그치고 버디 5개를 잡아내며 3언더파 68타의 성적을 스코어카드에 적어냈다.

9언더파 62타의 맹타를 휘두른 선두 벤 커티스(미국)에 6타 뒤진 공동16위. 2003년 브리티시오픈 챔피언 커티스는 생애 18홀 최소타 기록을 세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24일(토)

▲메이저리그〈세인트루이스-디트로이트〉(07 : 55·Xports)

▲프로야구〈한화-KIA〉(18 : 30·MBC ESPN), 〈현대-두산〉(18 : 00·KBS SKY SPORTS), 〈삼성-LG〉(18 : 10·SBS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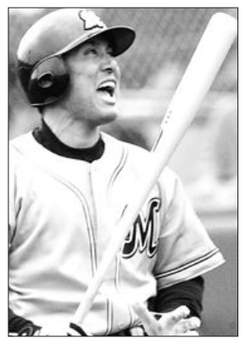
25일(일)

▲PGA투어 부즈 알렌 클래식 3R(04 : 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시카고C-미네소타〉(08 : 10·Xports), 〈시애틀-샌디에이고〉(10 : 55·X-ports)

인터리그 MVP는 놓쳤지만…

이승엽, 월간 MVP 도전



소속팀의 부진으로 인터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우수선수상을 모두 놓친 일본프로야구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월간 MVP에도전한다. 일본야구기구(NPB) 홈페이지가 22일 발표한 일본생명 협찬 6월 MVP 센트럴리그 타자 부문에서 이승엽은 21일 현재 타율 0.439(66타수 29안타), 10홈런, 15타점으로 10명의 후보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성적을 과시했다.

타율은 이와무라 아키노리(야쿠르트.0.358), 후쿠도메 고스케(0.356.주니치) 등보다 훨씬 앞섰으며 홈런에서는 아라이 다카히로(히로시마.4개)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타점은 아라이와 동률이고 최다 안타도 1위다.

주말 주니치전을 비롯, 요코하마, 한신과의 남은 경기를 잘 치른다면 일본 무대 진출 후 첫 월간 MVP 수상도 가능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